

2017년 건설산업 위기와 기회요인 점검

I.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 현황	1
II.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 전망	7
III. 해외건설 시장동향	12
IV. 진출 유망시장 및 전략	19
V. 시사점	22

< 요 약 >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 현황>

- 2016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민간수주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164.9조원을 기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
 - 2013년 91.3조원까지 떨어졌던 국내 건설수주액은 2014년 107.5조원, 2015년 158조원, 2016년 164.9조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 2016년 국내 건설 수주 구성을 살펴보면 공공수주가 47.4조원, 민간수주가 117.5조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간 부분의 성장이 국내 건설 수주를 견인
- 2016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8.8% 감소한 282억 달러로, 최근 10년내 최악의 수주 실적을 기록
 - 중동 수주가 전년대비 35.2% 감소한 107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아시아 수주도 35.5% 감소한 127억 달러에 불과
 - 해외건설 수주의 양대 시장인 중동 및 아시아 시장에서 극심한 수주 부진에 빠짐
- 2016년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대비 50% 감소한 132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토목 및 건축 수주도 전년대비 각각 24.7%, 25.3% 감소
 - 2016년 해외건설 수주 부진의 주원인은 플랜트 수주가 급감했기 때문
- 2016년 국내 건설사 실적은 내수시장 호황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 중
 - 2016년 국내 건설사 실적은 분양시장 호황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개선
 - 대형건설사의 주택사업 영업이익률은 12%에 달해 부진한 해외건설 부분의 부진한 실적을 상쇄 중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 전망>

□ 국내 부동산 경기는 2017년부터 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주택보급 확대 정책과 저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 호조세가 상당기간 지속
- 부동산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건설사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으로 2015년 51.6만호, 2016년 45.4만호 등 장기평균분양 물량인 29만호를 상회하는 분양이 이루어짐
- 분양물량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17년과 2018년 입주예정 총 물량은 78.5만호로, 29만호 내외의 평균 연간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황

□ 2017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기저효과로 2016년 보다 개선되겠지만 수주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유가 상승 및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주상황이 2016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두바이유 기준 올해 유가 평균은 배럴당 55달러로 예상돼 작년 대비 40% 정도 상승할 전망
 - AIIB의 본격적인 사업 지원으로 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이 2017년부터 가시화될 예정
- 2017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4.7% 증가한 350억 달러 전망
- 2013년 이후 대규모 적자로 인해 과거처럼 공격적인 수주활동이 어려워지며, 여전히 발주자 위주의 경쟁환경도 부담스러운 상황
 - Petrofact, TR 등 유럽업체들도 중동 수주 플랜트에서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중동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

□ 2017년 중동시장 수주는 2015년 수준인 165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이란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연기되었던 중동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
- 아시아 수주액은 AIIB 본격적인 발주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20억 달러에 그칠 전망
 - 기술력보다는 가격 중심인 도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중국 업체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려워 아시아 인프라시장에서 수주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

□ 2017년 이후 내수시장 호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건설사 실적도 하락할 전망

- 2017년 국내 신규수주는 건축 및 토목 공종에서 모두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본격적인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신규 분양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토목분야도 정부 SOC 예산 전년대비 약 7% 축소될 예정
- 국내 건설사 실적을 떠받쳐 왔던 내수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규 수익원 발굴이 필요한 시점

□ 지난 2년간 부진했던 해외건설 수주 확대가 아국 건설사의 성장의 핵심 열쇠

- 국내 아파트 분양을 통한 매출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아국 건설사가 성장의 해법은 해외시장 개척뿐

<해외건설 시장 동향>

- 2015년 해외건설 시장 규모는 5,001억 달러로 전년대비 4% 감소
 - 2010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한 해외건설 시장 규모가 201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2016년 해외건설 시장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규모는 4,970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
 - 2014년 하반기 이후 급락한 유가하락으로 2016년 중동지역 플랜트 발주가 급감
 - 2014년, 2015년 약 천억 달러를 상회했던 중동 플랜트 발주 규모가 2016년 500억 달러 미만으로 큰 폭으로 축소됨
 - 세계 최대 건설시장인 중국시장도 2015년을 정점으로 수요가 감소 중
- 2017년 해외건설 시장은 전년대비 5.6% 성장한 5,25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에 불과했으나, 2017년 3.4%, 2018년 3.6% 등으로 글로벌 경기는 점차 개선될 전망
 - 유가 상승, 아시아 및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로 해외건설 시장은 활기를 찾을 전망
- 2020년까지 해외건설 시장은 우호적인 시장환경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효과로 세계 경기가 상승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건설 시장도 수혜를 받을 전망
- (중동지역) 2017년 중동시장은 2016년 저조했던 발주가 유가 상승과 더불어 회복돼 약 85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전망
 - 국가별로는 이집트 135억 달러, 사우디 131억 달러, UAE 117억 달러, 오만 97억달러, 쿠웨이트 82억 달러 규모의 발주가 이루어질 전망
- (아시아) 2017년 아시아 해외시장 규모는 1,210억 달러로 2015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

- 2015년 아시아 시장규모는 1,208억 달러로 전년대비 12.1% 감소했으며, 2016년에도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
- 중국시장이 2015년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시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수요 증가로 활성화되고 있음

□ (유럽 및 북미) 아시아 건설시장의 감소 대비 유럽 및 북미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임

- 2015년 유럽 및 북미 시장도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아시아 대비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과 유럽 선진국은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어 2016년 하반기 이후 건설수요가 크게 증가

□ 2015년 기준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분야가 1,396억 달러로 최대이며, 석유화학 1,148억 달러, 빌딩 1,068억 달러 순

- 인프라 등 토목·건축 분야가 해외건설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석유화학 및 발전 등 플랜트 분야가 약 40%, 기타가 10%를 차지
- 해외건설 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분야는 전년대비 2% 증가를 기록했으며, 도로·교통분야는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음

<해외건설 진출 유망시장>

□ 한·중·일 건설산업을 비교해 보면 아국 건설시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내수시장에 의존한 성장은 한계가 있음

- 중국 및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외건설 비중이 10%대에 불과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자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중국 해외건설 매출액이 2014년 900억 달러로 세계 1위로 올라섰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음
 - 일본 역시 내수시장 비중이 80%에 달해 외부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에 나서고 있음

-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가를 성장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본 결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이 가장 유망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은 여전히 매력적인 지역
 - 안정성이 취약하나 아시아 개도국 시장은 성장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며, 경제성장과 관련된 인프라 분야는 유망 분야
 -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경제개발에 따른 인프라 수요가 연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검증된 가격대비 뛰어난 품질 경쟁력은 중동시장에서 경쟁 가능하나, 북미 및 유럽지역 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시사점>

- 2017년은 건설산업에 위기와 기회요인이 공존하는 한해가 될 전망
 - 내수시장 축소와 대외적 치열한 경쟁환경은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해외건설 시장의 발주 확대 및 아국 기업들의 체력 회복은 기회요인으로 작용
 - 2013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던 해외건설시장은 2017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전망
 - 아국 건설사들은 3년간 내수시장에서 비축한 체력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의 수주 부진을 털고 2016년을 바닥으로 해외건설 수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저가수주 방지, 수주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적의 방안은 “팀코리아” 구성을 통한 유기적 협력
 - 사업발굴부터 협상, 기획, 시공, 금융조달 및 사후관리까지 해외건설의 모든 단계에 걸쳐 경쟁력 있는 회사간 협력이 추세화되고 있음
 - 아국 기업간 협력 모델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지원과 정부 지원이 합쳐질 경우 경쟁력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

I.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 현황

1. 국내건설 수주 동향

□ 2016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민간 수주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164.9조원을 기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

- 2013년 91.3조원까지 떨어졌던 국내 건설수주액은 2014년 107.5조원, 2015년 158조원, 2016년 164.9조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 2016년 국내 건설 수주 구성을 살펴보면 공공수주가 47.4조원, 민간 수주가 117.5조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간 부분의 성장이 국내 건설 수주를 견인

□ 민간수주액 117.5조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토목 10.9조원, 건축 106.5조원으로 건축분야가 수주를 주도

- 건축분야 수주액을 살펴보면 주택 67조원, 비주택 39.6조원으로 연평균 30조원 내외를 기록했던 주택분야가 2015년과 2016년 60조원을 넘어서는 과열 증후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공공수주 47.4조원은 전년대비 6%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
 - 공공 주택 분야는 전년대비 74.1% 급증한 9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 수치였으며, 비주택 건축은 25.4% 증가한 11.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민간 수주액은 전년대비 3.7% 증가해 117.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
 - 토목 분야는 전년보다 26.2% 감소한 10.9조원이었으나, 주택분야가 7.1%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인 67조원을 기록
 - 비주택 건축도 10.2% 증가한 39.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연도별 국내 공공/민간 건설 수주액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총 계	공 공					민 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2	83.1	30.8	22.2	8.6	2	6.6	52.3	6.7	45.6	29.2	16.4
2003	102.6	32.3	23	9.3	3.3	6	70.3	9	61.3	41.9	19.4
2004	94.6	33.8	23.3	10.5	3.2	7.3	60.8	9	51.8	32.5	19.3
2005	99.5	31.9	21	10.9	3.9	7	67.6	9.4	58.2	39.2	19
2006	107.3	29.5	18.6	10.9	5.1	5.8	77.8	9.7	68.1	48.2	19.9
2007	128	37.1	21.9	15.2	7.6	7.6	90.9	14.3	76.6	50.6	26
2008	120	41.8	23.4	18.4	9.3	9.1	78.2	17.9	60.3	35.3	25
2009	118.8	58.5	42.8	15.7	7.4	8.3	60.3	11.4	48.9	31.7	17.2
2010	103.1	38.1	25.7	12.4	4.7	7.7	65	15.6	49.4	26.9	22.5
2011	110.7	36.7	21.9	14.8	7	7.8	74	16.9	57.1	31.7	25.4
2012	101.4	34	18.9	15.1	6.4	8.7	67.4	16.8	50.6	27.8	22.8
2013	91.3	36.2	20.1	16.1	5.1	11	55.1	9.8	45.3	24.2	21.1
2014	107.4	40.7	24.5	16.2	5.3	10.9	66.7	8.2	58.5	35.8	22.7
2015	158	44.8	30.7	14.1	5.2	8.9	113.2	14.8	98.4	62.5	35.9
2016	165	47.5	27.3	20.2	9	11.2	117.5	10.9	106.6	67	39.6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해외건설 수주 동향

□ 2016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8.8% 감소한 282억 달러로, 최근 5년내 최악의 수주 실적을 기록

- 유가하락으로 중동 수주가 전년대비 35.2% 감소한 107억 달러에 불과
- 2016년 아시아 수주도 127억 달러로 전년대비 35.5% 감소해 아국 해외건설 수주의 양대 시장인 중동 및 아시아 시장에서 극심한 수주 부진에 빠짐

□ 지역적으로는 2017년 중동시장 수주가 2015년 수준인 16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유가와 해외건설 수주액과의 상관관계가 0.9를 넘어설 정도로 유가는 해외건설 수주에 가장 중요한 요소
- 2017년 두바이 평균 유가는 2015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 수주액도 최소 2015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6년 수주 기대가 컸던 이란시장 수주가 2017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올해 중동 수주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
- 아시아 지역 수주액은 AIIB 출범에 따른 수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과 비슷한 120억 달러에 수준에 그칠 전망
- 2015년 45억 달러에 달했던 베트남 수주가 2016년 23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중국 수주액도 2015년 15억 달러에서 2016년 6억 달러로 감소
-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세계 최대 시장인 아시아 시장 비중이 정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

(단위 : 억 달러)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중동	357	472	295	369	261	313	165	107
비중(%)	72.7	66.0	49.9	56.9	40.0	47.4	35.8	37.9
아시아	87.9	144	194	194	275	159	197	127
비중	17.9	20.1	32.8	29.9	42.2	24.1	42.7	45
유럽	4.7	3.9	3.7	5.3	7	67.5	9.6	6
비중	1.0	0.5	0.6	0.8	1.1	10.2	2.1	2.1
중남미	7.2	20.6	66	61.9	33.3	67.5	45	16.2
비중	1.5	2.9	11.2	9.6	5.1	10.2	9.8	5.7
아프리카	12	24	22	16.1	10.8	21.9	7.5	12.2
비중	2.4	3.4	3.7	2.5	1.7	3.3	1.7	4.3
북미	22	49.5	10	2.3	63.6	30	36	13.7
비중	4.5	6.9	1.7	0.4	9.8	4.5	7.9	4.9

자료 : 해외건설협회

- 2016년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대비 50% 감소한 132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토목 및 건축 수주도 전년대비 각각 24.7%, 25.3% 감소
- 2016년 해외건설 수주 부진의 주원인은 플랜트 수주가 급감했기 때문

- 해외건설 수주에서 플랜트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편중된 구조로 인해 위험 분산이 어려운 상황
- 토목, 건축 및 용역 서비스 등 공종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외부 환경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하나 플랜트를 제외한 분야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인프라 경쟁력을 인프라 시장 개척을 통한 공종 다변화가 시급

<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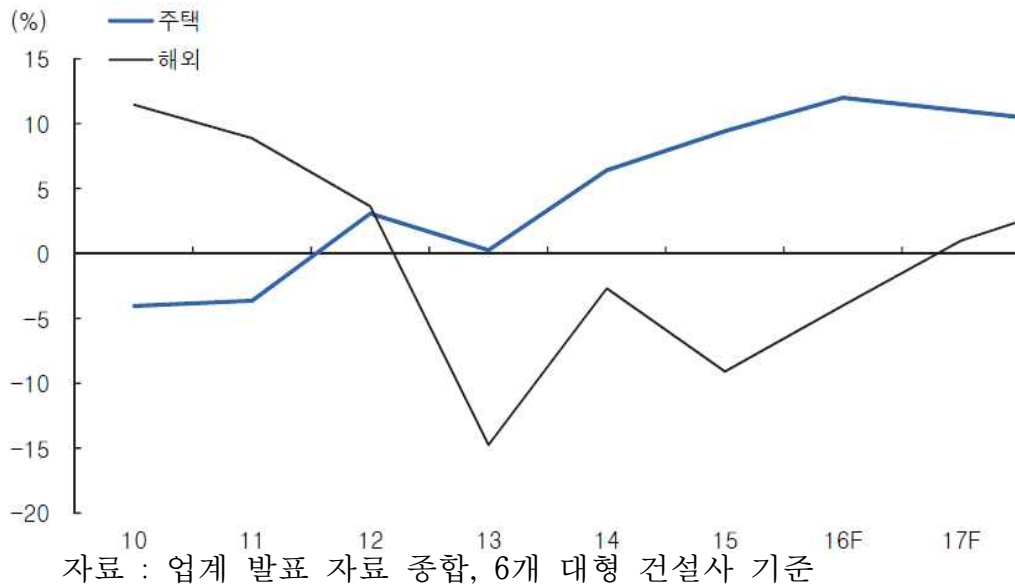
공 종	2014		2015		2016		증감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08	660	697	461	606	282	△38.8
토 목	63	56.6	70	85	53	64.4	△24.2
건 축	244	49.3	245	71.1	201	53.3	△25.0
플 랜 트	75	517.2	50	264.9	56	132.4	△50.0
전 기	45	14	34	8.5	52	14.8	74.1
통 신	5	1.9	15	1.8	5	0.03	△98.3
용 역	276	21	283	30	239	16.9	△43.7

자료 : 해외건설협회

3. 국내 건설기업 실적현황

- 2016년 국내 건설사 실적은 내수시장 호황에 따른 수혜를 누리고 있음
 - 2016년 국내 건설사 실적은 분양시장 호황으로 인해 크게 개선
 - 2016년 아파트 분양 물량이 50만호를 넘어서는 등 최근 10년 최고 수준을 기록
 - 주택시장 호황으로 대형 건설사의 주택사업 영업이익률은 12%대를 기록 중
 - 대형 건설사 영업이익이 상당부분이 주택사업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대형 건설사 주택부분 VS 해외 영업이익률 현황 >



< 건설사 개별 재무재표 기준 경영실적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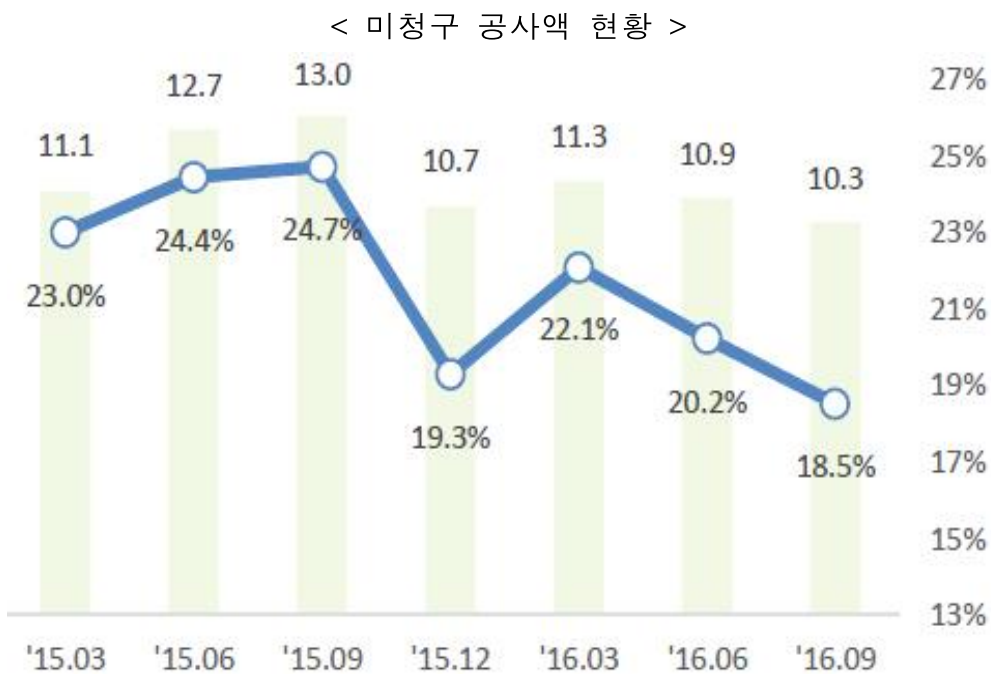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개별재무제표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현대건설	연매출	10,104.6	10,433.4	10,591.3	10,755.8	10,660.4	10,960.5
	영업이익	516.7	415.6	475.7	478	472.4	483.5
대림산업	연매출	7,187.4	9,041.8	8,441.7	7,845.4	8,135.3	8,654
	영업이익	580.3	466.4	275.2	154.5	424.7	324.7
한화건설	연매출	2,745.2	3,240.7	3,768.4	3,120.6	2,739.4	2,833.1
	영업이익	177.5	152.2	70.5	-130	-282.7	127
대우건설	연매출	7,031.9	8,180.3	8,417.1	9,853.1	9,877.5	10,964.6
	영업이익	364.9	365.2	-253.1	415.5	334.6	-466.1
SK건설	연매출	6,394.5	7,536.8	7,505.3	8,477.3	8,722.6	7,282.1
	영업이익	106.9	101	-490.6	40.9	74.4	219.6
삼성엔지니어링	연매출	8,138.2	9,284.8	8,234.7	7,472.3	4,922.7	5,601.6
	영업이익	651.6	714.3	-277.7	302.9	-1137	132.8
현대엔지니어링	연매출	1,662.8	2,271.2	2,616.2	5,283.4	6,181.2	6,940.6
	영업이익	192.4	234	265.5	378.8	367.3	494.6
GS건설	연매출	8,524.9	8,531	7,861.8	8,353.3	9,069.8	9,996.1
	영업이익	545.1	133.2	-1031.4	12.7	138.2	387.8
포스코건설	연매출	6,142	7,041.3	8,028.3	7,514.7	6,536.9	5,496.1
	영업이익	223.7	355.8	404.4	277.3	245.2	-180.9
삼성물산	연매출	2,687.2	3,000.7	3,018.5	3,312.7	8,885.1	20,001.6
	영업이익	208.1	134.1	108.1	92.6	-209	31.6
현대산업개발	연매출	3,101.6	2,207.3	2,877.1	3,152	3,347	3,507.3
	영업이익	361.6	66.1	-203.9	155.4	293.1	406.9

자료 : 업계 발표 자료 종합

□ 과거 대비 미청구공사의 손실 전이 위험은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

- 해외건설은 종료시점에 이르러서야 수익성을 알 수 있는 프로젝트 특성상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수주시점에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미청구공사 금액은 여전히 손실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 추이에 대해 관찰이 필요
- 해외 건설 비중이 높은 7개 건설사 미청구공사는 2015년 말 13조 원까지 확대됐으나, 2016년 9월 기준 10.3조원으로 감소
- 해외건설의 경우 손실은 한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미청구공사의 양적인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청구공사의 손실 전이 위험성은 2017년 내내 지속될 전망



—●—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 비중

자료 : KIS, 해외건설 비중이 높은 7대 건설사 대상(대림, GS건설, 한화, 현대엔지니어링, 대우, SK, 현대건설)

< 아국 건설사 주요 손실 프로젝트 현황 >

건설사	프로젝트명	계약	발주 금액	손실 인식율%	원가 조정	준공 예상
현대건설	UAE 미르파 발전	2014-07	8,155	7.4%	1	17.1H
	카타르 국립박물관	2011-09	6,100	4.9%	1	17.2Q
	싱가폴 쓰레기 소각장	2013-09	1,260	15.9%	1	17.1Q
	싱가폴 MRT	2011-04	1,650	12.1%	1	17.1Q
GS건설	태국 UHV Plant Project	2012-10	6,438	11%	2	17.1Q
	쿠웨이트KOC Wara 압력유지	2011-09	4,676	18%	2	17.1Q
	사우디 Rabigh II CP 3&4	2012-06	20,293	17%	5	17.2Q
	KNPC North LPG Tank Farm	2011-04	6,019	12%	2	17.2Q
대림산업	오만 SRIP	2013-11	11,058	2%	1	2017
	쿠웨이트 KNPC SHFP	2013-05	4,766	26%	2	2017
	쿠웨이트 KOC Telemetry	2012-06	2,432	15%	1	2017
삼성ENG	UAE Takreer CBDC	2012-07	26,492	23.4%	2	2017
대우건설	사우디 자잔 정유	2012-12	5,909	73.8%	1	18.1H
	이라크 Al Faw Grand 항만	2013-11	7,311	24.9%	2	18.1H
	알제리 RDPP 발전	2012-10	10,150	10.8%	1	18.2H
	카타르 뉴오비탈 고속도로	2014-06	10,363	6.8%	1	18.1H

II.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 전망

1. 국내건설 수주 전망

□ 국내 부동산 경기는 2017년부터 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주택보급 확대 정책과 저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 호조세가 상당기간 지속
- 부동산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건설사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으로 2015년 51.6만호, 2016년 45.4만호 등 장기평균분양 물량인 29만호를 상회하는 분양이 이루어짐
- 분양물량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17년과 2018년 입주예정 총 물량은 78.5만호로, 29만호 내외의 평균 연간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황
-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추세에 있어, 저금리와 유동성에 기반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가계 부채 문제로 정부정책이 부동산시장 부양기조에서 관리 강화로 정책방향이 선회되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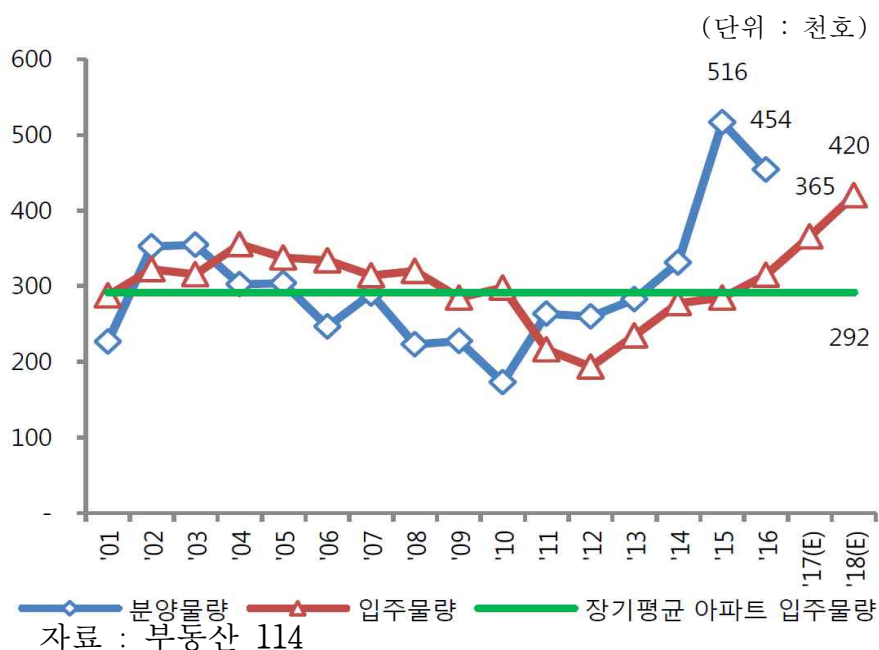
□ 2017년 국내 부동산 시장전망은 2016년 대비 부정적

- 2016년 분양 물량은 45만 세대에 달했으나, 2017년 분양 계획 물량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35만 세대
- 미국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변동이 클 경우 국내 건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분양 물량은 30만 세대를 하회할 가능성도 높음

□ 2017년 이후 내수시장 호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건설사 실적도 하락할 전망

- 2017년 국내 신규수주는 건축 및 토목 공종에서 모두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본격적인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신규 분양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 토목분야도 정부 SOC 예산이 2015년 45.5조원, 2016년 35조원, 2017년은 전년대비 약 7% 축소될 예정으로 공공 비중이 높은 토목시장은 침체를 이어갈 전망
- 국내 건설사 실적을 떠받쳐 왔던 내수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규 수익원 발굴이 필요한 시점

< 아파트 분양 및 입주물량 >



2. 해외건설 수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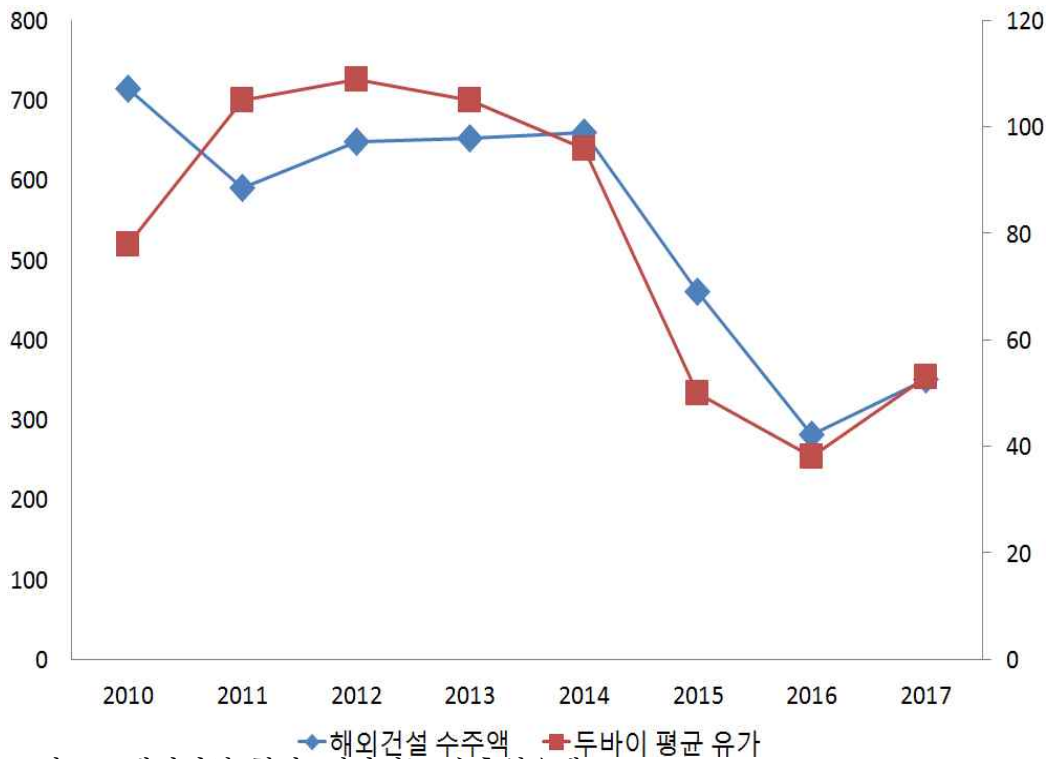
□ 2017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기저효과로 2016년 보다 개선되겠지만 수주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유가 상승 및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주상황이 2016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두바이유 기준 올해 유가 평균은 배럴당 55달러로 예상돼 작년 대비 40% 정도 상승할 전망
 - AIIB의 본격적인 사업 지원으로 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이 2017년부터 본격화될 예정
- 하지만 2013년 이후 대규모 적자로 인해 과거처럼 공격적인 수주 활동이 어려우며, 여전히 발주자 위주의 경쟁환경도 부담스러운 상황
 - Petrofact, TR 등 유럽계 플랜트 업체들도 중동 수주 플랜트에서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중동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
 - 하지만 여전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업체간 경쟁은 치열한 상황으로 프로젝트 단가 개선이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

□ 2017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4.7% 증가한 350억 달러 전망

- 2017년 3월까지 수주액은 29.8억 달러로 전년대비 63.3% 감소한 상황이나, 연기됐던 이란 프로젝트 수주가 2017년 상반기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과거 저수익 프로젝트가 상당수 정리됨에 따라 아국 기업들의 수주 여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
- 2017년 수주액은 2015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발주자 중심의 시장 환경으로 인해 수주단가의 적정성 및 수익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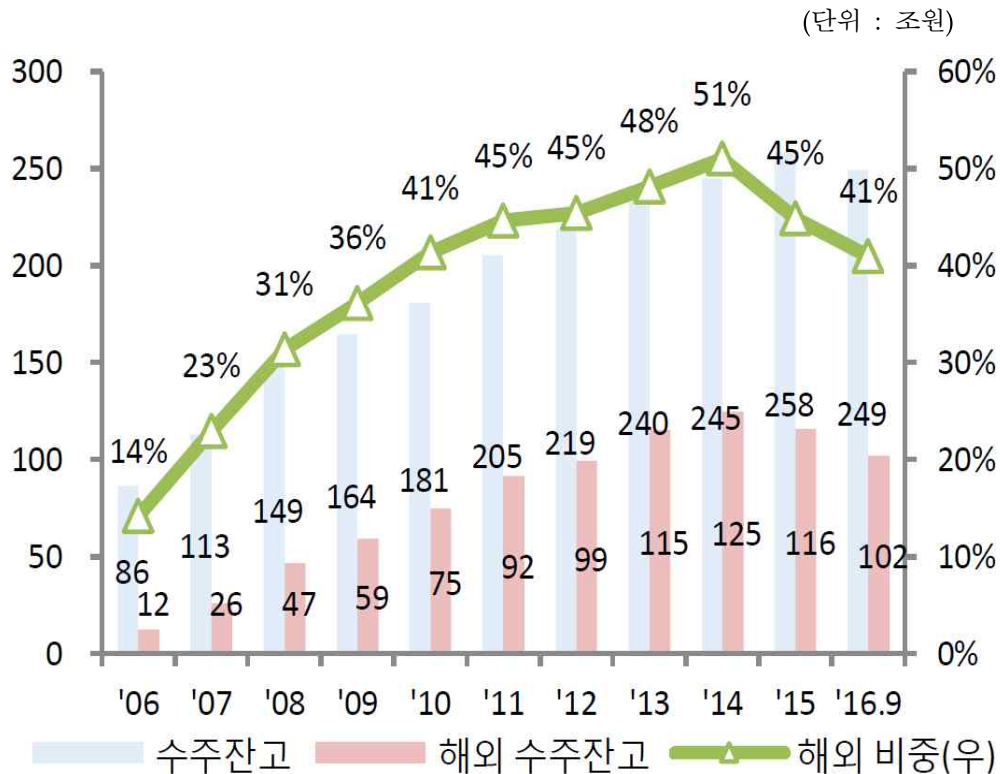
< 해외건설 수주 현황 및 전망 >



□ 2017년 이후 건설산업은 신규수주 저하에 따른 사업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국내 주택분야 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2017년 정부의 SOC 예산이 전년대비 6.8% 축소되고 연내 분양물량도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해 국내 신규수주는 건축 및 토목 공종에서 모두 감소할 전망
- 2014년 이후 수주잔고가 감소에 따른 해외건설 부문의 외형둔화 및 국내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매출기반이 약화될 위기에 처함
 - 국내 건설시장은 성숙단계에 진입해 내수시장의 과도한 의존은 건설산업의 성장성을 저해

<국내 건설사 수주잔고 현황 추이>



자료 : KIS Rating

주 : 해외건설 비중이 높은 8개 대형 건설사 기준(대림, GS, 한화,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대우, SK 현대건설) I

□ 지난 2년간 부진했던 해외건설 수주 확대가 아국 건설사의 성장의 핵심 열쇠

- 국내 아파트 분양을 통한 성장 및 수익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아국 건설사의 성장의 해법은 해외시장 개척 뿐
- 지난 2년간 대규모의 해외건설 부실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가 위축됐으나, 2016년 현안 프로젝트가 상당수 완공됨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의 부담감은 크게 줄어든 상황
- 해외건설 수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전략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

III. 해외건설 시장동향

1. 해외건설 시장현황

□ 2015년 해외건설 시장 규모는 5,001억 달러로 전년대비 4% 감소

- 2010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한 해외건설 시장 규모가 201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해외건설 시장 규모 감소의 주원인은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 2012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3%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대표적인 경기민감 업종인 건설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음

□ 2016년 해외건설 시장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규모는 4,970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

- 2014년 하반기 이후 급락한 유가하락으로 2016년 중동지역 플랜트 발주가 급감
 -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지역 국가들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85억 달러 규모의 카타르 알카라나 석유화학 콤플렉스 등 대형 프로젝트가 발주가 연기
 - 2014년, 2015년 약 천억 달러를 상회했던 중동 플랜트 발주 규모가 2016년 500억 달러 미만으로 큰 폭으로 축소됨
- 세계 최대 건설시장인 중국시장도 2015년을 정점으로 수요가 감소
 - 중국 경제성장률이 6%대로 둔화됨에 따라 부동산 및 건설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음
 -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AIIB를 기반으로 인프라 건설을 확대할 전망
- 과거 높은 경제성장률로 주목을 받았던 브라질 등 중남미 시장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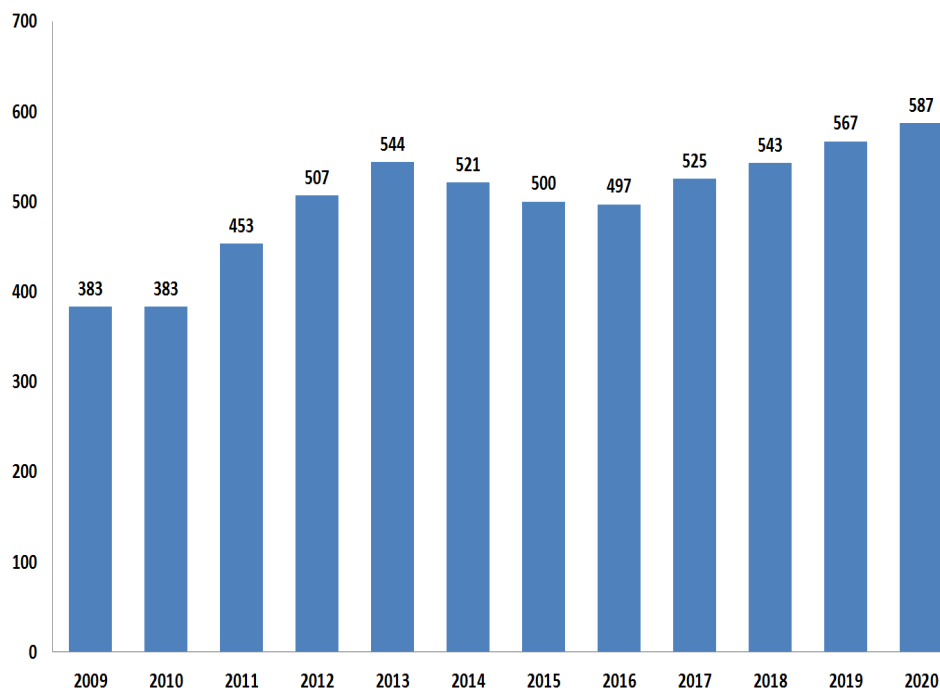
□ 2017년 해외건설 시장은 전년대비 5.6% 성장한 5,25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7년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인도 등 신흥국 성장으로 회복세를 기록할 전망

-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에 불과했으나, 2017년 3.4%, 2018년 3.6% 등으로 글로벌 경기는 점차 개선될 전망
 - 유가 상승, 아시아 및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로 해외건설 시장은 활기를 찾을 전망
 - 유가 상승으로 지연된 221억 달러 규모의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가 재입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중동 플랜트 발주액은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할 전망
 - AIIB 출범으로 아시아 인프라 개발이 본격화되어 향후 5년간 약 6조 달러 이상 인프라시장에 투자되어 해외건설 시장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미국 인프라 시장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1조 달러 투자 계획으로 인프라 건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전망
- 2020년까지 해외건설 시장은 우호적인 시장환경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효과로 세계 경기가 상승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건설 시장도 수혜를 받을 전망

< 해외건설 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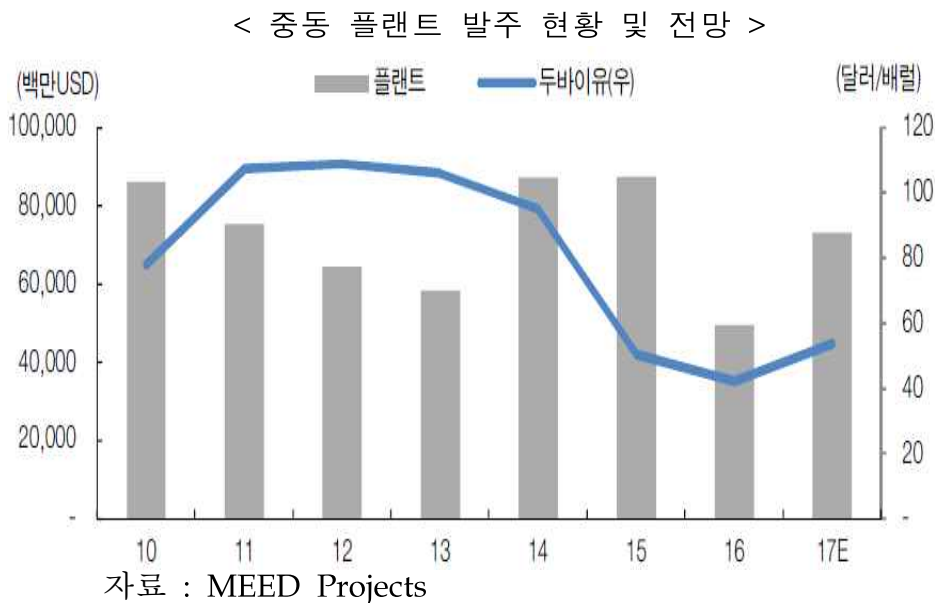


자료 : ENR,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2. 지역별 해외건설 시장동향

□ (중동지역) 2017년 중동시장은 2016년 저조했던 발주가 유가 상승과 더불어 회복돼 약 85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전망

-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유가가 OPEC의 감산효과와 세계 원유 수요 증가로 50달러를 회복했으며,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높아지고 있음
- 국가별로는 이집트 135억 달러, 사우디 131억 달러, UAE 117억 달러, 오만 97억달러, 쿠웨이트 82억 달러 규모의 발주가 이루어질 전망
- 분야별로는 오일&가스 134억 달러, 오일 추출(Oil Extraction) 130억 달러, 가스 추출(Gas Extraction) 44억 달러 등 총 730억 달러의 플랜트 발주가 이루어질 전망



□ (아시아) 2017년 아시아 해외시장 규모는 1,210억 달러로 2015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

- 2015년 아시아 시장규모는 1,208억 달러로 전년대비 12.1% 감소했으며, 2016년에도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
- 아시아 건설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건설수요가 2015년을 기점으로 성장단계를 지나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아시아 시장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

- AIIB 출범에 따른 아시아 인프라 건설의 활성화 및 인도 등 신흥국 성장이 아시아 시장 성장을 이끌 수 있으나, 추진 동력은 과거 대비 약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방증이며, 중국 건설시장을 대체할 시장의 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유럽 및 북미) 아시아 건설시장의 감소 대비 유럽 및 북미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임

- 2015년 유럽 시장규모는 934억 달러로 전년대비 6.4% 감소했으며, 북미 시장은 762억 달러로 5.5% 감소
- 북미시장은 감소한데는 캐나다 시장 부진이 주요인이며, 미국시장의 경우 533억 달러로 전년대비 4.3% 증가
-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유럽지역도 2016년 하반기 이후 시장 상황은 개선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미국시장은 성장세가 더욱더 빨라질 전망
- 미국의 댐,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1조 달러를 들여 인프라 시설을 개선할 전망

< 미국 내 주요 인프라 항목별 평점 및 개선 비용 >

(단위 : 조달러)

항목	88	98	01	05	09	13
항공	B-	C-	D	D+	D	D
교량	-	C-	C	C	C	C+
댐	-	D	D	D+	D	D
식수	B-	D	D	D-	D-	D
에너지	-	-	D+	D	D+	D+
유해 폐기물	D	D-	D+	D	D	D
내륙 수로	B-	-	D+	D-	D-	D-
재발	-	-	-	-	D-	D-
공원	-	-	-	C-	C-	C-
철도	-	-	-	C-	C-	C+
도로	C+	D-	D+	D	D-	D
학교	D	F	D-	D	D	D
고형 폐기물	C-	C-	C+	C+	C+	B-
운송	C-	C-	C-	D+	D	D
폐수	C	D+	D	D-	D-	D
항만	-	-	-	-	-	C
미국 인프라 성적	C	D	D+	D	D	D+
개선 비용	-	-	\$1.3조	\$1.6조	\$2.2조	\$3.6조

자료 : ASCE

< 지역별 해외건설 시장 규모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아시아	1,388	27.2	1,465	26.9	1,374	26.3	1,208	24.1
유럽	1,023	20.0	1,119	20.6	998	19.1	934	18.7
북미	716	14.0	826	15.2	807	15.5	762	15.3
중동	913	17.9	841	15.5	790	15.2	765	15.3
아프리카	569	11.1	622	11.4	709	13.6	644	12.9
중남미	500	9.8	565	10.4	533	10.2	527	10.6
기타	1.8	0	1	0	4	0.1	161	3.1
전체	5,110	100	5,440	100	5,215	100	5,001	100

자료 : ENR

3. 공종별 해외건설 시장동향

□ 2015년 기준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분야가 1,396억 달러로 최대이며, 석유화학 1,148억 달러, 빌딩 1,068억 달러 순

- 인프라 등 토목·건축 분야가 해외건설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석유화학 및 발전 등 플랜트 분야가 약 40%, 기타가 10%를 차지
- 해외건설 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분야는 전년대비 2% 증가를 기록했으며, 도로·교통분야는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음
- 경기에 민감한 석유화학 분야는 전년대비 8.5% 감소했으며, 통신 및 제조 분야도 감소
 - 2016년 세계 경기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석유화학 분야 시장 규모는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공종별 해외건설 시장 규모 >

	2012		2013		2014		2015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교통	1,307	25.6	1,369	25.2	1,357	26.0	1,396	27.9
석유화학	1,198	23.4	1,282	23.6	1,253	24.0	1,144	22.9
건축	1,033	20.2	1,127	20.7	1,167	22.4	1,068	21.4
전력	519	10.2	573	10.5	544	10.4	541	10.8
산업시설	421	8.2	328	6.0	269	5.2	206	6.0
상수	154	3.0	158	2.9	135	2.6	139	2.8
제조공장	80	1.6	96	1.8	98	1.9	108	2.2
하폐수	72	1.4	71	1.3	69	1.3	49.6	1.0
통신	54	1.1	56	1.0	67	1.3	40.5	0.8
유해폐기물	21	0.4	9	0.2	8	0.2	12.1	0.2
기타	253	4.9	370	6.8	247	4.7	298	6
합계	5,111	100	5,440	100	5,214	100	5,001	100

자료 : ENR

4.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현황

□ 2015년 해외건설 최대 수주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수주액은 937억 달러

- 중국은 2012년 67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 수주액 2015년 937억까지 급성장
 - 2015년 대부분의 국가 수주액이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프리카 등 개도국 지역 수주 확대를 통해 전년대비 4.1% 성장
 - 2016년 중국 수주액은 1,000억 달러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해외 건설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2013년까지 1위였던 스페인이 2015년 해외건설 수주 순위 2위를 차지했으며, 금액은 전년 12.6% 감소한 598억 달러를 기록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수주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일본은 고속철 등 교통분야 수주를 바탕으로 증가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순위는 4위로 2014년 5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으나, 2016년은 5위권 밖으로 밀렸을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 대규모 수주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매출 순위가 2012년 6위에서 2015년 4위까지 상승
- 하지만 2016년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함에 따라 2016년 매출 순위는 7~8위권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의 해외진출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중동, 아시아 등 경쟁 지역에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국가별 해외건설 매출 규모 >

순위	국가	2012			국가	2013			국가	2014			국가	2015		
		매출액 (억불)	기업 수	점유 율 (%)		매출액 (억불)	기업 수	점유 율 (%)		매출액 (억불)	기업 수	점유 율 (%)		매출액 (억불)	기업 수	점유 율 (%)
1	스페인	728.9	12	14.3	스페인	798.5	13	14.7	중 국	900.2	65	17.3	중국	937	65	19.3
2	미 국	715.2	34	14.0	중 국	791.4	62	14.5	스페인	684.1	11	13.1	스페인	598	11	12.3
3	중 국	671.7	55	13.1	미 국	709.6	31	13.0	미 국	594.0	32	11.4	미국	473	39	9.7
4	독 일	435.0	4	8.5	프랑스	507.4	5	9.3	프랑스	513.7	5	9.8	한국	406	12	8.3
5	프랑스	432.4	4	8.5	독 일	465.5	5	8.6	한 국	370.6	12	7.1	프랑스	346	5	7.1
6	한 국	414.1	15	8.1	한 국	424.2	13	7.8	독 일	338.4	4	6.5	독일	291	4	6
7	이태리	309.3	17	6.1	이태리	289.0	16	5.3	이태리	299.2	15	5.7	이태리	256	15	5.3
8	일 본	210.2	15	4.1	일 본	222.4	14	4.1	터 키	292.8	43	5.6	일본	252	14	5.2
9	오스트리아	173.1	2	3.4	터 키	204.1	42	3.8	일 본	218.1	14	4.2	터키	226	39	4.6
10	터 키	168.2	38	3.3	스웨덴	183.3	2	3.4	오스트리아	156.2	2	3.0	브라질	157	2	3.2
	전 체	5,110.5	250	100	전 체	5,439.7	250	100	전 체	5,215.5	250	100	전체	5,001	250	100

자료 : ENR, 세계 250개 건설사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순위를 선정

IV. 진출 유망시장 및 전략

- 한·중·일 건설산업을 비교해 보면 아국 건설시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내수시장 의존한 성장은 한계가 있음
- 중국 및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외건설 비중이 10%대에 불과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자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중국 해외건설 매출액이 2014년 900억 달러로 세계 1위로 올라섰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음
 - 일본 역시 내수시장 비중이 80%에 달해 외부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에 나서고 있음
 - 중국 및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내수시장 규모로 인해 산업 규모 확대를 위해선 해외시장 진출은 불가피

<한·중·일 해외건설 매출액 및 비중>

	한국		중국		일본	
	해외 매출액	비중 (%)	해외 매출액	비중 (%)	해외 매출액	비중 (%)
2009	163.4	31.4	505.9	17.1	175.7	18.6
2010	183.1	34.6	571.6	15.0	155.7	17.1
2011	257.7	41.9	627.8	14.2	188.4	17.8
2012	414.1	50.3	671.7	13.4	210.2	20.6
2013	424.2	49.0	791.4	13.9	222.4	23.1
2014	370.6	46.3	900.2	14.0	218.1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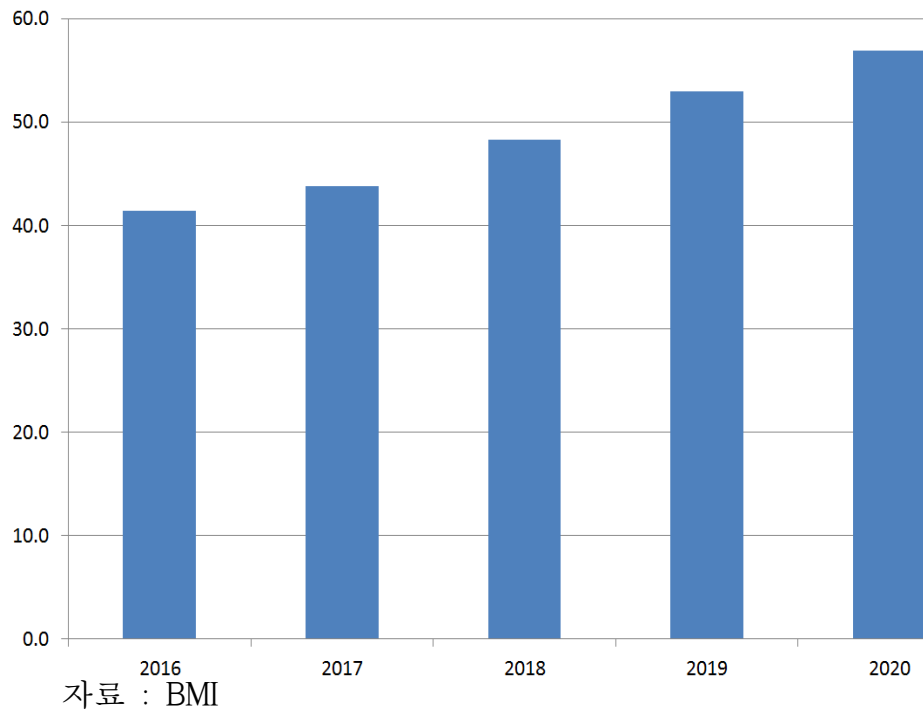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협회

-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가를 성장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본 결과 동남아시아 시장이 가장 유망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도 여전히 매력적인 지역
- 성장성 평가 기준은 시장 규모, 시장 성장률, 경제성장률이며, 진입 용이성의 기준은 국가 안정성, 제도적 환경, 건설사업 환경 등임

- 안정성이 취약하나 아시아 개도국 시장은 성장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며, 경제성장과 관련된 인프라 분야는 유망 분야
 -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경제개발에 따른 인프라 수요가 연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중동시장은 여전히 국내 건설사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시장이 가장 유망
 -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기반 시설 및 담수화 등 플랜트 분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연 8%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
 - UAE 시장도 성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대비 뒤처지나, 연 6%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이란시장은 경제제재조치 해제에 따른 원유시설, 도로, 항만, 철도 등 대규모 건설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2020년까지 총 2,434억 달러에 달할 전망
- 현대엔지니어링은 3.8조원 규모의 플랜트를 이란에서 수주했으며, 대림산업도 2.2조원의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이란시장에서의 수주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대우건설, GS건설 및 삼성물산 등도 병원, 도로 및 철도,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수주를 위해 이란 진출을 준비 중
-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시장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시장이 유망하나 선진 건설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미국, 캐나다 등은 양호한 경제성장과 셰일가스 개발과 같은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시장 개방도도 양호하나 기술 및 금융경쟁력이 약한 국내 기업들의 진입은 어려운 상황
 - 유럽에서 가장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시장도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플랜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 건설사들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원조개발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유망한 시장으로 부상 중

<이란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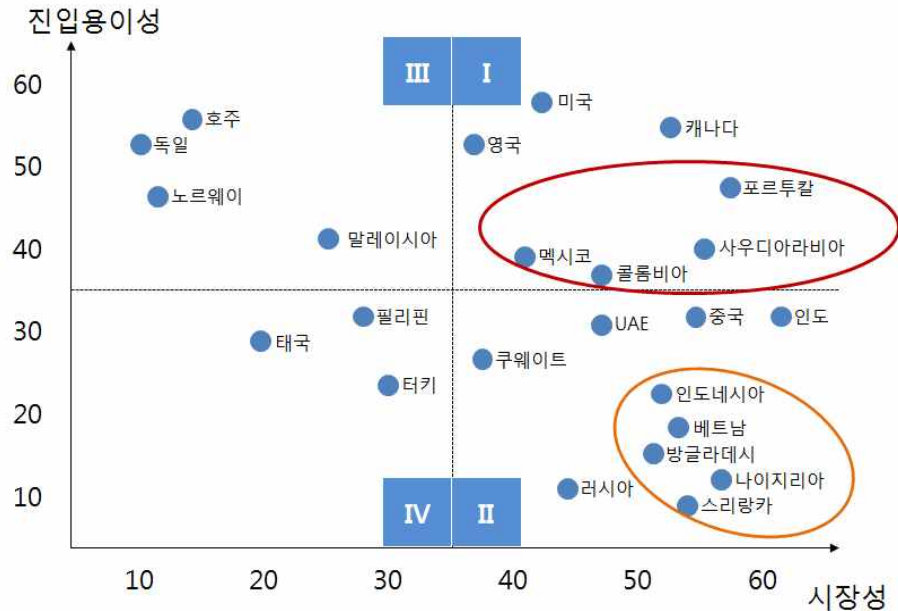
□ 국내 건설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선 유망한 시장 발굴과 밸류체인 확장 전략이 필요

- 유럽 선진업체의 기술력과 중국, 터키 등 후발국가의 가격경쟁력 사이에서 아국 건설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 건설호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음
- 지역다양화 및 EPC에 집중된 건설기반을 PMC¹⁾, FEED²⁾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포지셔닝이 필요
 - 해외건설 수주의 60%를 차지하는 중동지역 리스크 분산을 위한 아시아 및 중남미 등 개도국 시장 개척 뿐만 아니라 미국 인프라 시장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선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요
 - 지역다변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가장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은 M&A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전략마련과 자금 확보가 필요

1)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 프로젝트 관리 운영

2) FEED(Front End Engineering and Design) : 프로젝트 확정 전 프로젝트기간, 비용, 기술사와 사업주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단계

<진출 유망시장 선정 결과>



주: 시장성은 물시장 시장규모 및 성장률을 기준으로 평가, 진입용이성은 SAM사 자료를 기준으로 국가별 시장 개방도를 평가

V. 시사점

□ 2017년은 건설산업에 위기와 기회요인이 공존하는 한해가 될 전망

- 2014년 이후 아국 건설산업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국내 분양시장의 호황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음
 - 국내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신규 분양 감소는 건설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2017년 3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실적도 부진한 상황이 지속
 - 유럽 업체들의 환율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와 중국, 터키 등의 공격적인 수주 활동 등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인해 수주가뭉이 지속 중
- 유가 반등 및 세계 경기 개선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요가 서서히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던 해외건설시장은 2017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전망

- 아국 건설사들은 3년간 내수시장에서 비축한 체력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의 수주 부진을 털고 2016년을 바닥으로 해외건설 수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저가수주 방지, 수주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적의 방안은 팀코리아 구성을 통한 유기적 협력
 - 사업발굴부터 협상, 기획, 시공, 금융조달 및 사후관리까지 해외건설의 모든 단계에 걸쳐 경쟁력 있는 회사간 분업이 트렌드화되고 있음
 - 아국 기업간 협력 모델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지원과 정부 지원이 합쳐질 경우 경쟁력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

<해외건설 산업 수주 확대 방안>

